

“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워크숍 개최”

— 물 통합관리 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



충남발전연구원과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에서는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2월 23일 물 통합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.

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영일 수질총량관리센터장의 “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추진현황”,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의 “물관리체계와 4대강사업 - 물관리기본법(안)을 중심으로”, 서울대학교 정은성 박사의 “지속가능한 유역통합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”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.

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중인 물 통합관리 현황 및 문제점, 중앙 정부의 물 통합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, 그리고 유역통합관리계획 수립절차 및 필요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.

한편, 충남발전연구원 및 수질총량관리센터에서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자료들을 물 통합관리 계획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, 향후에도 물 통합관리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효율적인 물 통합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